

클머리에

별발을 우리르며

창 문을 열고 밤하늘을 보자. 요란한 불빛 때문에 별을 볼 수 없으면, 거리의 불을 모두 끄기로 하자. 시야를 가리는 징그러운 콘크리트 덩어리들과 보기 흉한 아스팔트도 지워버리자. 이제 우리는 하늘이 훤히 열린 조그만 언덕 위에 앉아 있다. 그래도 별은 반짝거릴 줄을 모른다. 숨을 막히게 하는 하늘의 희뿌연 뚜껑도 걷어버리자. 이제야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하늘이 보인다. 별이 뚝뚝 떨어질 것 같던 그 까만 하늘. 이게 얼마 만인가. 친구와 난 가끔 함께 밤하늘을 쳐다보곤 했다. 나는 번번이 내 별을 찾는 데 실패했지만, 친구에겐 제 별을 찾아내는 특별한 방법이 있었다. 오리온 자리의 삼태성 중 가운데 것! 그 뒤 친구는 정말로 그 별이 되었다.

뒤리의 하늘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두 발로 설 수 있게 만든 건, 별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옛날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자주 별을 쳐다보았을 것이다. 우리와는 다른 감정을 가지고 말이다. 별을 보면서 나누는 이야기도 달랐을 것이다. 북극성은 1,000광년 떨어져 있고 어찌구 하는 실없는 애길랑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그런 하찮은 문제보다 별들이 그려내는 갖가지 모습에 매혹되기를 더 좋아했다. 그들의 눈앞에선 몇 개의 별들이 모여 아름다운 왕비 카시오 페이아가 되고, 용맹한 장수 오리온이 되고, 무시무시한 전갈이 되었다. 넓은 밤하늘에는 무한한 상상이 펼쳐지고, 기나긴 겨울밤은 별자리들에 얽힌 사연과 함께 깊어갔다.



and beards of the two apostles is reminiscent of the calli- 175 The Northern Firmament. 1515. Woodcut. 43x43. Kupferstich-

〈성좌와 별들〉

알브레히트 뒤러, 판화, 16세기



〈음악으로 동물들을 매혹시키는 오르페우스〉

그는 어머니인 뮤즈한테서 직접 음악을 배웠는데, 그가 하프를 연주하면 산천초목이 다 감동했다.

그 시절엔 이 땅이 칠면조 요리 덮개 같은 천구에 덮여 있었다. 그때 사람들은 덮개 너머에 있는 찬란한 세계의 빛이 천구에 송송 뚫린 구멍 틈으로 새어나오는 게 별이라 생각했다. 물론 더 똑똑한 사람도 있었다. 그리스의 한 철학자는 별이란 허공에 떠 있는 무지무지하게 큰 못생긴 돌덩어리라고 했다. 그가 왜 굳이 시대에 걸맞지 않은 이야기로 분위기를 깨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다행히 그의 심술도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진 못했던 것 같다. 그 뒤로도 오랫동안 밤하늘은 커다란 화폭이었고, 사람들은 그 화폭에 갖가지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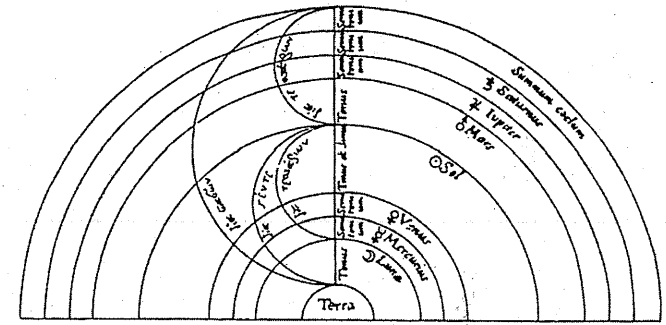
림을 채워넣기를 좋아했다. 뒤러의 하늘을 보라. 옛 사람들의 눈에 비친 밤하늘은 적어도 이러했다.

피타고라스의 하늘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으리라. 피타고라스 학파는 사실 학파라기보다 오르페우스교라는 신비주의 신앙을 가진 하나의 종교 집단이었다. 그들은 매우 엄격한 종교적 계율을 지켰고, 무엇보다 영혼의 윤회를 믿었다. 피타고라스가 살던 당시 그리스에 서는 막 철학적 사유가 싹트고 있었다. 당시 철학계에서는 이 세상의 다양한 사물과 변화무쌍한 현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어떤 근본적인 것(arche)을 찾는 게 유행이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물'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불'이라 했다. 그런데 피타고라스는 특이하게도 그런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 곧 '수(數)'가 만물의 근원이라 생각했다.



〈음악가 피타고라스〉
현의 길이를 3분의 2로 하면 음이 5도 올라가고, 2분의 1로 하면 정확히 한 옥타브가 올라간다.



〈피타고라스의 우주관〉

피타고라스는 우주를 거대한 현금으로 보았고, 거기서 천구의 음악을 들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수로 표시된다. 수를 갖지 않는 사물은 없다. 그럼 모든 것에 앞서 존재하는 건 바로 수가 아닌가. 수는 모든 것에 앞서 존재하며 혼돈의 세계에 질서를 주고 형체 없는 것에 형상을 준다. 따라서 수를 연구하는 게, 곧 존재의 가장 깊은 비밀을 탐구하는 것이다. 때문에 수학 연구는 피타고라스 교단에서 지켜야 할 계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다.

피타고라스가 신봉하던 오르페우스는 인류 최초의 음악가였다. 때문에 피타고라스 교단이 음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 건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은 물론 음악에서도 수적 비례를 찾아냈다. 아니, 음악이야말로 오히려 수적 비례 관계가 가장 순수하게 나타나는 영역이 아닌가. 음의 높이는 현(絃) 길이의 비례 관계로 설명된다. 현의 길이를 3분의 1 줄이면 음은 정확하게 5도가 올라가고, 반으로 줄이면 한 옥타브 올라간다. 여러 음 사이의 수적 비례는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낸다.

이 신비주의자들이 밤하늘에 빛나는 별의 신비를 그냥 지나쳤을 리 없다. 하늘에도 수의 조화가 지배하고 있다. 별은 예정된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일정한 시간에 나타나 일정한 시간에 사라진다. 그래서 그들에게 별의 움직임은 리드미컬한 춤이었다. 재미있게도 그들은 별들이 현악기 속에 각자의 음을 갖고 있다고 믿었다. 그렇다면 천체의 운행 자체가 거대한 교향곡이 아닌가. 그 당시는 비유가 논증이였다. 때문에 우주의 조화는 음의 조화, 곧 아름다운 화음으로 여겨졌다. 마침내 밤하늘엔 춤추는 별들이 어우러져 장엄한 음악이 울려 퍼졌다. 피타고라스 교단의 교리에 도통한 사람은 이 우주의 음악을 들을 수 있었다 한다. 과연 그 소리가 어땠을까?

그리고 우리의 하늘

아득한 옛날,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른 태도로 자연과 세계를 대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에 생명이 있다고 믿었고, 그 생명들과 언제든지 교감할 수 있었다. 무정한 밤하늘에서조차 그들은 별들이 그려내는 아름다운 그림을 보았고, 별들이 연주하는 장엄한 음악을 들었다. 상상해보라. 시시각각 움직이는 밤하늘의 거대한 형상들, 별자리의 인물들이 펼치는 극적인 이야기들, 울려 퍼지는 교향곡을…….

언제부턴가 우리는 불행하게도 세계를 이렇게 느끼길 그만두었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순 없을까? 물론 그럴 순 없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삶의 한구석엔 고대인들의 심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여기선 아직도 그들처럼 세계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 바로 예술의 세계다.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다. “내가 타죽은 나무가 내 속에서 자란다/나는 죽어서/나무 위에/조각달로 뜬다.…… 저 먼 우주의 어느 곳엔가/나의 병을 앓고 있는 별이 있다.”

시인은 피타고라스가 우러르던 바로 그 하늘을 본다. 그는 자연과 윤회의 끈으로 생명을 주고받고, 빛의 속도로 달려도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머나먼 우주와 교감한다. 이걸 거짓말이다. 난 나무도 아니고 조각달도 아니다. 내가 아는 한 별은 병을 앓을 수 없다. 더구나 내 병을 대신 앓다니. 하지만 이 거짓말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왜? 우리는 왜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믿고 싶을까? 인류가 까마득한 과거 속에 묻어버린 이 환상이, 왜 아직도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 우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 B. 러셀, 《서양의 지혜》(이명숙 외), 서광사, 1990.